

거칠지만 소박하게...우리네 일상 그려내

February 7, 2022 | 이한나 기자

Page 1 of 1

거칠지만 소박하게...우리네 일상 그려내



'세드 엔진' [사진 제공=국제갤러리]

“좀 더 못 그랬으면 좋겠다.”
 미술계 아이돌로 불리는 유망 작가가 내뿜은 바람은 뜻밖이었다. 그것도 국내 최연소(만 25세)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경력의 작가 문성식(41)의 말이다. 그는 오랜 숙련으로 연마된, 기술적인 필력은 영재미가 없어 아이가 그린 것만 같은 우둔한 선을 찾고 있었다. 딱 프랑스 출신 여성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스케치처럼.

리얼리티(현실성)가 살아있지만 작가적 해석이 더해져 어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추구한 다. 직접 목욕시키듯했던 병든 할아버지 몸은 사진도 남아있지 않아 상상하며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과수원집 가족의 소소한 일상과 주름 가득한 어머니 모습을 따듯한 시선으로 그린 문성식의 개인전 'Life 삶'전이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2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2019년 국제갤러리 서울관에

문성식 개인전 'Life 삶'
부산 달맞이고개 추변풍경 등
현실속 한장면 포착해 표현
"다큐 같은 그림 그리고파"

서 처음 선보였던 유화·드로잉 신작들이 소품 위주로 100여 점 출품됐다. 대형 장미 연작 '그냥 삶' 신작과 지난해 전남 수목 비엔날레에 선보인 '그저 그런 풍경: 땅의 모습' 연작 중 10여 점도 포함됐다.

부산 망미2동 복합문화공간 F1963에 있는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만난 문 작가는 "2019년 서울 개인전 때는 새로운 시리즈(연작)를 시작해서 익숙하지 않은, 버거거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문성식은 원근법과 같은 서구 회화의 논리를 거부하려 노력하면서 사소하고 별것 아닌 듯한 대상이나 풍경을 새롭게 표현하는 독자적인 미술 언어로 주목되는 작가다. 특히 회화와 드로잉의 구분을 없앤 유화 드로잉은 이번 개인전에 서 좀 더 원숙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박수근 회화 속들가루 같은 거친 점감과 이월종 회화에서 느껴지는 인간적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 연꽃 보면 나서처럼 휘갈긴 그림이다. 하지만 매끄러운 종이 위에 쉽게 연필로 그리면 될 것을 진흙 바닥 같은 바탕을 만들고 '용쓰듯' 힘겹게 그리는 행위를 굳이 택한다. 그는 2013년 두산재단에서 뉴욕 입주작가 때 접했던 이탈리아 변화 이미지가 머리에 맺들며 과거 인간의 에너지가 파괴된 모습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

실제 작업 과정은 캔버스에 종이죽을 발라를 집간처럼 표면을 그늘그늘한 사포 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 유화를 올리고 연필로 긁고 건조시킨다. 반건조 상태에서 칼로 긁어 스크래치를 내고 다시 건조한 후 젤스(석고와 아교를 혼합한 흰색 재료로 물감의 점착력을 높여줌)를 바르기도 한다. 채색하는 아크릴 구아슈(물과 고무를 섞어 만든 수채 물감)로 표현한다. 작품이 마르는 시간 때문에 보통 3개 정도 작품을 동시에 작업해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한다.

문 작가는 "호기심이아말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추동력이 된다"며 "내 그림 속에서 서정적 리얼리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교차되는 것을 즐기는 데 앞으로 다뤄 비중이 더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달맞이고개에 거주하는 작가가 포착한 일상 풍경은 쉽게 공감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을 보러 찾아간 중년들 모습을 담은 2021년 작품 '협상'은 흥미롭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존의 핵심 문제이지만 자기 욕망의 끝도 보여준다. 작가는 '신이 이런 인간들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그림 바탕 귀퉁이에 깔리듯 인간 군상을 배치했다. 빛깔이 흐드러지게 핀 잔란한 계절에 헤어지는 남녀를 그림 귀퉁이에 밀어 넣은 2021년 작품 '세드 엔진'도 그려냈다. 부산 이한나 기자